



#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3가 85번지    전화: 02)713-5254    [www.chungpa.or.kr](http://www.chungpa.or.kr)

#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탄절 제1주 】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25. 면류관 벗어나서 .....
♠ 공동기도 .....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올 한 해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주의 인도하심으로 한 해의 종착역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한 해가 오는 이 시간에 성탄절이 자리하고 있는 의미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참된 의미를 지니게 됨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주님, 추위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바람막이가 되어주시고 따스한 외투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 이 추운 날씨만큼이나 냉각되고 있는 남과 북의 관계를 속히 풀어 주십시오. 전쟁에 대한 소문으로 사람들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 사이에 평화의 봄바람을 일으켜 주십시오. 민족 간에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위로의 말씀 .....	사60:1,2 .....
♠ 교 독 문 .....	87. 계시록21장 .....
♠ 영 광 송 .....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대표기도 .....	I. 박아름 선생 II. 윤석철 장로
응 답 송 .....	찬양대
찬 양 .....	390(통444). 예수가 거느리시니 .....
성경봉독 .....	I. 눅6:43-45 .....
	II. 계12:1-3, 행7:51-60 .....
찬 양 .....	찬양대
말 씬 .....	I. 좋은 나무가 되기를 .....
	II. 생명과 평화의 길 .....

염철민 학생  
전충길 집사  
김재흥 목사  
김준우 목사

찬 양 .....	새교우
♠ 봉 헌 .....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	인도자
공동체 소식 .....	인도자
♠ 평화의 인사 .....	다함께
♠ 보냄의 말씀 .....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재앙과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은 이때에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생명의 길을 따라 사십시오. 평화의 길을 따라 사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시대의 그릇된 흐름을 거스르지 못하고 그에 편승하여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시시때때로 주님께서 보여주는 표징을 잘 살피며 살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표징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생명과 평화의 길을 걸으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	635. 주의 기도 .....	다함께
♠ 축 복 .....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b>주일 오후 집회</b>	<b>수요 집회</b>
‘처녀이며 어머니이신 마리아’ 구미정 박사	시편 묵상 / 손성현 전도사 기도 : 진정숙 집사

다음 주 예 배 위 원	<b>설교</b>	<b>기도</b>	<b>성경봉독</b>
	김기석 목사	조병무 장로	장혜숙 권사

12월	영접위원	윤석철 김용진 정한구 최숙화 박효선 홍복선
	헌금위원	김인걸 정영선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예수님

장애가 있는 한 소년이 파리의 한 교회에서 처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했다. 의식이 끝난 후 가족들은 다과를 나누며 조출한 축하 모임을 가졌다. 삼촌이 소년의 어머니에게 다가가서 “정말 아름다운 의식이었죠? 다만 이 아이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슬프군요.” 라고 말했다. 소년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걱정 마세요. 엄마, 예수님은 내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니까요.”

나다운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나는 점점 늙어 가지만 담담하게 받아들인다. 그게 내 모습이기 때문이다. 내 인생 여정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남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과 싸움을 벌인다. 축구 시즌이 되면 영국인이든, 프랑스인이든, 이탈리아인이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 자기편이 이기기를 바란다. 자기편이 이기면 기쁨에 겨워 고함을 지르고, 지면 눈물을 터뜨린다. 우리는 문화적 정체성, 종교적 정체성 혹은 비종교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민족적 정체성의 지배를 받는 사회는 바로 경쟁에 빠져든다. 그러므로 증오로 변질될 수 있는 경쟁심을 피하려면 더 근원적인 정체성을 찾아내야 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진리라는 근본적인 정체성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진리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신다. 앞서 이야기한 소년과 같은 정체성을 갖기를 원하신다. 우리 안에 가장 친숙한 그것을 발전시킨다면 우리는 변화될 것이다. 더 이상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받기를 바라지 않는다. 우리는 자유로워진다. 이것이 변화다.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들을 만나도록, 모든 사람이 하나하나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임을 알도록 부름받았다. 물론 적대적으로 행동하거나 테러를 가하는 사람도 있다. 마음의 상처가 깊은 사람도 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근본 정체성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다. 이 근본 정체성을 발견하면 우리는 서로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될 것이다.

... 지난 40년 동안 나는 장애인들이 지닌 변화의 힘을 목격해 왔다. 이제는 장애인들과 공동생활을 하지 않고 밖에 작은 공간을 마련해서 살지만, 장애인

들과 한 공간에서 식사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은 지금도 누리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소위 정상인들과 만나는 일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어야 할지 난감하다. 그러나 장애인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나누며 대화하는 시간은 편안하고 즐겁다. 내가 조금씩 주류 사회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 더 넓은 세상을 향해 우리를 알리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지만, 두 세계 속에 사는 일이 쉽지는 않다. 더 넓은 세상에서, 나와 삶을 나누는 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움에 대해 이야기한다. 장애인들과 함께하고 함께 기뻐하며 인생을 축하하고 즐거움을 누리는 일이 중요하다는 깨달음에 대해 이야기한다. 사람들은 위스키를 마시고 극장에 가는 법은 알지만 축하하는 법은 잘 모른다. 축하한다는 것은 함께 있어 행복하다고 말해 주는 것이다.

예수님은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특권과 명성과 돈을 독점하고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쓸모없고 가치 없는 존재로 취급받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오셨다. 한 몸을 만들려고 오셨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 12장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인간의 몸에 비유하면서 가장 연약하고 하찮게 보이는 지체들이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요긴한 지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야말로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지체인 것이다. 교회론에 관한 책에서 이런 내용을 주요 관심사로 다룬 경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누가 그래야 한다고 믿겠는가? 하지만 이것은 믿음의 핵심이며 교회가 된다는 의미의 본질이다. 우리가 숨기고 내보이지 않는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지체들이 진정으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라고 믿는가? 교회에 대한 우리의 비전이 실제로 그렇다면 수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나는 벽 너머에 있는 이들과 만나 그들의 은사를 발견하고 감사하고자 하는 깊은 욕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강조하고자 애써 왔다. 결코 가난한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권력욕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가난한 이웃들과 삶을 함께해야 한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계획이 고작 이런 것인가 싶어서 이상하게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행복하면 세상이 바뀌지 않겠는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연약한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일일 것이다. 어떻게 하면 더불어 삶을 축하할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지 배우는 일이 급선무일 것이다.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법을 배울 때 세상은 변화될 것이다. 무겁고 진지한 대화를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다.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함께 삶을 축하하며 세상에 희망의 신호가 되는 공동체들이다.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줄 신호가 필요하다.

## 사람은 사랑한 만큼 산다

박용재

사람은 사랑한 만큼 산다  
저 향기로운 꽃들을 사랑한 만큼 산다  
저 아름다운 목소리의 새들을 사랑한 만큼 산다  
숲을 온통 싱그러움으로 만드는 나무들을 사랑한 만큼 산다  
사람은 사랑한 만큼 산다  
이글거리는 붉은 태양을 사랑한 만큼 산다  
외로움에 젖은 낮달을 사랑한 만큼 산다  
밤하늘의 별들을 사랑한 만큼 산다  
사람은 사람을 사랑한 만큼 산다  
홀로 저문 길을 아스라이 걸어가는  
봄 · 여름 · 가을 · 겨울의 나그네를 사랑한 만큼 산다  
예기치 않은 운명에 몸부림치는 생애를 사랑한 만큼 산다  
사람은 그 무엇인가를 사랑한 부피와 넓이와 깊이만큼 산다  
그만큼이 인생이다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운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김아영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 ◇ 헌 금 영 수 기 ◇

### 십일조헌금:

김윤수 박상호 김준우 우순덕 김혜권 박재임 박애순 배근수 김금순  
 오자영 임고운 정한구 왕영순 허호범 박성실 김정애 이건식 신영신  
 박용진 김용원 최중훈 김금하 양재성 임미심 조병무 송양진 장원호  
 박성희 김혜영 박대웅 무명

### 월정헌금:

김남종 오복순 김승현 김수진 김순자 윤성종 김윤정 윤주원 최윤선  
 이은자 하현철 최성애 황의일 이현숙 김문주 정현숙 정완수 김재광  
 최윤희 권 순 박석희 조항미 이봉옥 백성래 한정애 이경남 무명

### 감사헌금:

김남종 오복순 심상숙 조순덕 김현주 최중훈 김금하 박숙현 이광섭  
 김수현 김소영 문금석 이봉옥 김명순 이교영 무명5

### 녹색꿈 헌금:

장성호 최경미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장혜숙	박성실	심	심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안디옥	임정자	최경미		
가나안	문영혜	이명희		
갈릴리	안정숙	진정숙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시온	박효선	허정윤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에베소	이순정	김금순		
빌립보	이형숙	권미숙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나사렛	정영선	백혜숙		
갈라디아	유경순	김수진		
고린도	이영란	이증자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송년주일** :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일 년의 여정을 감사히 되돌아보고 소망 가운데 새로운 한 해를 내다보십시오.
2. **임원회** : 예배 후 12월 정기 임원회가 있습니다.
3. **특강** : 오늘 오후 집회는 구미정 박사(송실대 기독교학과 겸임교수)가 ‘처녀이며 어머니이신 마리아’ 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합니다.
4. **송구영신예배** : 이번 주 목요일 저녁 11시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가족이 함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5. **신년주일** : 다음 주일은 2011년 첫 주일입니다. 1·2부 연합으로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6. **선교회주관예배** : 다음 주일 오후집회는 3남·5여선교회가 주관하는 예배입니다.
7. **떡국떡 판매** : 여선교회에서 떡국떡을 판매합니다.
8. **신앙실천** : 한 해의 마지막 주입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며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 식당 봉사 : 엠마오 속 (다음 주 : 엠마오 속)

\* 설거지 봉사 : 윤석철 김대근 이준하 (다음 주 : 전해리 김지호 김정우)

\* 다음 주 주방위원 : 장혜숙 박성실 원인해 정경례 최윤선 이건식 최영혜

##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